

댄스뮤직에서 사용된 월드뮤직의 특징 분석 -DJ Snake의 음악을 중심으로-

박범근, 조태선*

라엘실용음악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parkbum64@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Characteristic Analysis of World Music Used in Dance Music -Focused on DJ Snake's music-

Bum-Geun Park, Tae-Seon Cho*

Lael Music Academy

*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약

DJ Snake는 프랑스 파리 출신의 DJ로써 전 세계적인 히트 곡을 배출한 아티스트이다. 그는 본인의 댄스 뮤직에 월드뮤직적인 요소를 섞는 것으로 유명한데 2015년 3월 2일에 발매한 <Lean on>은 음지에 있던 댄스 장르의 음악을 양지로 끌어올린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 음악은 Billboard hot 100 차트 4위, 영국 싱글차트 2위를 기록하였으며 여러 국가에서 차트 1위를 달성하였다. 또한 유튜브 조회 수는 25억 회를 넘어가고 있으며, 그 외에도 <Let me love you>, <Taki Taki>, <Turn Down for What>등 다양한 히트 곡을 발매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DJ Snake의 음악 중에서 <Get Low>와 <Magenta riddim>를 연구하여 볼 것이다. <Get Low>에서는 아랍음악의 선율인 마카를 사용하여 아랍음악의 특징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Magenta riddim>에서는 인도음악의 선율의 사용과 인도 전통악기인 쉐나이의 연주로 인도음악의 특징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랍음악의 선율과 인도음악의 선율을 알아보고 이를 <Get Low>와 <Magenta riddim>의 선율과 대조 분석하여 전통음악이 댄스뮤직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1. 서론

2. 본론

<Get low>는 묵직한 베이스, 그리고 강력한 신스 사운드 특징인 댄스 장르의 노래이다. 2014년 05월 28일 발매되었으며, 영화 <분노의 질주>의 Ost로도 유명하다. 유튜브 조회 수는 5억 3천 만 회를 넘었으며 2014~2015 US Billboard hot 100에서 61위, 댄스/일렉 차트에서는 5위, UK Single 에서는 88위, 댄스차트23위, ARIA차트에서는 1위를 기록한 대 히트 곡이다. 댄스 장르의 음악이지만 Hook의 신스 리드의 선율은 아랍의 선율을 사용한다. <Magenta riddim>은 2018년 02월 23일에 발표한 댄스 장르의 곡으로써 인도음악의 선율과 악기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 곡은 발표되고 빠른 시간에 대중들의 인기를 얻었는데 Billboard Dance Club부분에서 1위를 단숨에 차지하였으며 유튜브 조회 수는 공개 7개월 만에 1억 2천 만 건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내었다. 이 두 음악에서 사용되어진 아랍음악과 인도음악의 선율적인 특징들을 우선 알아보고 이를 조사 대상인 곡들과 대조하여 어떠한 특징들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2.1.1 인도 음악의 선율적 특징

인도음악에서는 선율, 음계 등 광범위한 개념을 포함하여 이 모든 것들을 라가(Raga)라고 부른다. 이 라가를 이루는 요소는 음률체계와 음, 구성모체, 음 배열의 법칙 등이 있다. 인도에서 음률 체계를 슈루티(Suruti)라고 부르는데 한 옥타브가 22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슈루티의 수에 따라서 선율의 음인 스와라(Svara)가 결정이 된다. 스와라는 현재 일곱 개의 기본적인 음이 있고 이는 각각 샤프자(Sadja), 리샤바(Rsabha), 간다라(Gandhara), 마디야마(Madyyama), 뿡짜마(Pancama), 다이바파(Dhaivata), 니샤다(Nicada)로 이루어져 있고 이 음의 약자를 따서 Sa, Re, Ga, Ma, Pa, Dha, Ni로 표기 하고 있다. 이러한 일곱 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음의 구성모체를 북부 인도에서는 타아트(That), 남부 인도음악에서는 멜라(Mela)

라고 부르고 있으며 타아트나 펠라로부터 기본 구성 음이 정해지고 음의 배열을 하여 라가를 만든다.



[그림 2] <Magenta riddim>의 베이스 선율 분석

[표 1] 타아트와 모드선법의 비교

빌라발 타아트 (Bilaval That)	아이오니안(Ionian)의 스케일과 같다.
카마즈 타아트 (Khamaj That)	믹솔리디안(Mixolydian)의 스케일과 같다.
카피 타아트 (Kafi That)	도리안(Dorian)의 스케일과 같다.
바이라브 타아트 (Bhairav That)	3도와 7도가 반음이 내려간 프리지안(Phrygian)스케일과 같다.
아사바리 타아트 (Asavari That)	에올리안(Aeolian) 스케일과 같다.
바이라비 타아트 (Bhairavi That)	프리지안(Phrygian) 스케일과 같다.
칼얀 타아트 (Klyan That)	리디안(Lydian) 스케일과 같다.
마르와 타아트 (Marva That)	2도가 반음 내려간 리디안(Lydian) 스케일과 같다.
푸르비 타아트 (Purvi That)	2도와 6도가 반음 내려간 리디안(Lydian) 스케일과 같다.
토디 타아트 (Todi That)	4도와 7도가 반음 올려진 프리지안(Phrygian) 스케일과 같다.

베이스의 음은 F, C, Eb을 연주 하고 있다. 쉐나이의 선율과 베이스의 선율을 나열해 보았을 때 F, G, Ab, Bb, C, Db, Eb의 7개의 7음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구성은 인도음악의 선율 중에 하나인 아사바리 타아트(Asavari That)의 음계 진행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다. 기본음인 샤프자(Sadja)의 위치를 F음으로 선택 하였으며 연주자에 따라 스와라의 높이가 다르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또한 32분표로 표현되어지는 꾸밈 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도 전통악기인 쉐나이의 연주방법 중에 하나인 가마까(Gam aka)이다. 가마까(Gam aka)는 미분 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꾸밈 음으로 선율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1.2 DJ Snake의 <Magenta riddim>과 인도음악의 선율 비교

<Magenta riddim>의 Hook 파트에서는 신스 리드가 아닌 인도의 전통리드악기인 쉐나이(Shenai)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선율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Magenta riddim>의 쉐나이 선율 분석

쉐나이의 선율을 분석하여 보면 F, G, Ab, Bb, C, Db의 음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hook 파트에서의 베이스의 음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2.2.1 아랍 음악의 선율적 특징

아랍음악의 선법은 마قام(Maqam)이라고 부른다. 이 마قام은 보통 즉흥연주로 사용이 되며 곡을 마칠 때에는 시작했던 마قام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랍음악에서 하나의 마قام을 연주하고 또 다른 마قام으로 이동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자의 역량에 달려있다. 서양음악에서는 반음(1/2)음이 가장 좁은 음이다. 하지만 아랍음악에서는 반의반음(1/4)이 가장 좁은 음으로 표현이 된다. 아랍 음악사에 등장한 마قام은 총 113개 이지만 현대 아랍음악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قام은 14개 이며 조옮김된 마قام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

[표 2] 아랍의 마قام과 모드선법의 비교

라스트 (Rast)	C장조 음계에서 E와 B를 1/4내린 음계
라스트 나와 (Rast nawa)	위의 라스트와 같은 음계이나 으뜸음이 G이다. B는 1/4음 내리고 F는 3/4음 올린다. 라스트를 완전 5도 조 옮긴 한 것
나하완드 (Nahawand)	C단조의 음계와 같은 마قام
히자즈 (Hijaz)	D단조의 음계에서 E음을 반음 낮추고 F를 반음 올려 만든 것과 같다. 그러나 제 7음은 올리지 않고 그냥 C로 내기도한다.

히자즈 카르 (Hijaz-kar)	C단조에서 두 번째 음을 반음 내린 것과 같다.
베이얏 (Bayat)	F장조에서 음을 D까지 내려 으뜸음을 삼고 E음을 1/4내려 만든 음계와 같다.
시가 (Sigah)	C장조 음계에서 E를 1/4음 내리고 A를 반음 내린 음계를 만든 다음, 세 번째 음에서 시작한 음계와 같다.
지하르 카 (Jihar-kar)	F장조와 완전히 같은 마قام
나크리즈 (Nakriz)	처음 3음은 C단조와 같지만 다음의 진행은 G단조처럼 보인다. 이 마قام은 옥타브와 3도를 음역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19음이 기본 음계가 된다
화라 화자 (Farah-faza)	G단조 음계와 같은 것이다.
사바 (Saba)	상행 음계와 하행 음계가 19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D음으로 시작하여 10번째 음인 F음을 마지막으로 하여 내려온다. 음계 중 G,B,D는 반음 내리고 E는 1/4음 내린다.
히자즈 카르쿠르드 (Hijaz-kar kurd)	C단조에서 D음을 반음내린 음계와 같다. 그리고 옥타브에 3도를 더하여 모두 19음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Ab은 그대로 쓰거나 반음올리거나, 1/4음 내릴 수도 있다.
후세이니 (Husseini)	베이얏과 같은 것인데 D로 시작하는 베이얏을 A로 시작한 것이다



[그림 4] <Get low>의 Hook2 리드선율

3. 결론

본 논문은 인도 음악의 선율적인 특징과 아랍 음악의 선율적인 특징들을 알아보고 DJ Snake의 음악 중 <Magenta riddim>, <Get low>을 선정하여 이 두 곡에서 인도 음악의 선율과 아랍음악의 선율이 사용되어진 부분들을 분석하여 비교해 보았다. 라가와 마قام을 이용한 리드의 선율들은 각각 그 지역의 음악 색을 나타내기에 충분 하였으며 신스 리드의 사용이 아닌 전통악기 웨나이의 사용 또한 그 지역 색을 나타내기에 충분 하였다. 오늘날의 댄스 뮤직에서 다양한 장르들이 혼합되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내고 있고 듣는 이들 또한 새로운 음악들을 찾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과 다양한 문화들의 결합이 어떠한 새로운 장르의 탄생을 불러올지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2.2.2 DJ Snake의 <Get low>와 아랍선율비교

<Get Low>의 Hook 1 파트의 선율은 아랍음악의 특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음들을 나열해 보면 처음 A음을 시작으로 하여 Bb, C#, D, G의 음을 사용하여 선율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은 단 2도의 음정이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 음과 세 번째 음에서는 증 2도의 음정이 생기며, 세 번째 음과 4번째 음에서는 단 2도의 음정이 생긴다. 이러한 음의 진행은 아랍 선율 중에 하나인 히자즈 마قام(Hijaz Maqam)의 형태와 같다. 그러므로 <Get Low>에서는 히자즈 마قام의 선율을 사용하여 아랍음악의 특징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Get low>의 Hook1 리드선율

- [1] 박범근. 「EDM에서 나타나는 월드뮤직소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se of World Music in EDM」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국내석사]
- [2] 홍동표. 「영상음악에 나타난 Middle East 음악의 연구 = (A) Study on middle east music in film music」 동의대학교 영상정보대학원,[2011][국내석사]
- [3] 안윤지. 「인도음악의 특징과 영화에 적용된 음악 요소 연구 : A.R.Rahman의 <Slumdog Millionaire> 음악 중심으로 = (A) Study on Features of Indian Music and Music Elements Applied to Movie : Focusing on Music of A.R.Rahman's Slumdog Millionaire」 상명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